

‘안방 최강’ 광주FC, 전북 상대로 홈 4연승 도전

11일 19시 광주월드컵경기장 홈에서 제주·대구·김천 꺾어 ‘1점차 승부’ 실리축구 구사 ‘축구 크리에이터’ 감스트 초대



안방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광주FC가 전북현대를 상대로 홈 4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11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3라운드 전북과의 홈 경기를 갖는다.

최근 광주는 홈에서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이후 홈에서 치른 제주SK FC, 대구FC, 김천상무와의 3경기를 내리 승리로 장식한 광주는 리그 12경기에서 5승 4무 3패(승점 19)로 5위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리그에서 쟁긴 5승 가운데 3승이 4월 이후 안방에서 치른 3연전에서 나왔다는 점은 홈 강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광주의 홈 3연승이 모두 1점차 승부로 실리축구의 결실을 맺었다는 점이다.

광주는 지난해 6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며 주도적인 축구를 구사했다면, 올해는 실리적인 운영까지 정착하며



광주FC가 오는 11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를 상대로 홈 4연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광주FC 오후성이 지난 5일 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한 뒤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다양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시작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는 시즌 초부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무대를 치르는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적절한 로테이션과 함께 경기 중에도 수시로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정호 감독이 선수단의 부상 및 컨디션

난조 등 각종 변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전북전 키 플레이어는 오후성이다. 직

전 김천과의 경기에서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을 결승골로 장식하며 예리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광주가 기록한 5번의 슈팅 가운데 3번이 오후성의 발끝에서 나왔을 만큼 자신감 또한 충분하다. 더욱이 오후성이 전북전을 자신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미 지난 2라운드 맞대결에서 전주성을 방문해 골맛을 봤기 때문이다. 당시 오후성은 후방 깊숙한 지역에서 넘어온 변준수의 롱패스를 정교한 가슴 트래핑으로 받아낸 후 호쾌한 발리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열기도 했다.

광주는 전북을 꺾을 경우, 승점 22점으로 전북과 승점 동률을 이루며 확실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뚜렷한 홈 강세를 자랑하는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광주의 홈 4연승 도전엔 유튜브 구독자 285만명의 축구 크리에이터 감스트가 함께한다.

특별 게스트로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은 감스트는 사인회, 시축, 하프타임 이벤트 등으로 팬들과 만난다. 구단은 ‘책님 신전 부스’, ‘광주FC 명예의 발끝: 감스트 vs 조빈’ 등의 코너를 통해 팬들에게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김근수 광주시청 감독, 장애인국대 소총 전담코치 선발

광주광역시청 장애인사격팀 김근수 감독이 국가대표 장애인사격 소총(SH2) 전담코치로 활약한다.

8일 대한장애인사격연맹에 따르면 김근수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감독이 ‘2025 창원장애인사격 월드컵대회’에서의 우수 성적과 소총 부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발한 국가대표 소총 전담코치에 선발됐다.

김근수 감독은 2016 리우패럴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선수출신으로 2023년 1월 광주시청 장애인사격 실업팀 감독으로 부임이후 2022 항저우장애인아시아게임 은메달(박승우 선수),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사격 최초 5관왕(박동안 선수),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공기소총 입사(R4) 단체전 세계신기록(박동안·임주현·박승우/1902.2점) 달성 등 굵직한 지도 성과를 인정받아 선발됐다.

김 감독은 오는 28일부터 개최되는 창원월드컵대회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국가대표 합숙훈련에 동참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장애인사격 소총(SH2) 전담코치로 선발된 김근수(오른쪽) 광주광역시청 장애인사격팀 감독이 김현성 광주시장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김근수 광주시청 감독은 “지도자로서 생애 첫 국가대표에 선발됐다는 점이 영광스럽다”며 “이번 국가대표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대한민국과 광주시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현성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할 김근수 감독님의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남부대 드림점프, 코리아오픈 줄넘기 국대 선발전 두각

이민영 4개 종목 입상 국대 랭킹포인트 1위

남부대학교는 스포츠레저학과 소속 줄넘기 동아리 드림점프의 학생선수들이 ‘2025 코리아오픈 줄넘기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다수 입상했다고 8일 밝혔다.

주장 이민영(스포츠레저학과 3년)은 개인 종목인 SRSS 부문 2위·SRIF 1위, 단체 종목인 SRSR 2위·DDSR 2위 등 총

4개 종목에서 입상했다.

이민영은 이러한 성적을 바탕으로 국가대표 종합 랭킹 포인트 1위에 올랐다.

김민준은 SRSS 3위, SRSR 2위로 종합 2위를 기록했다. 문창현은 SRIF 3위, SRPF 3위, SRSR 2위, DDSR 2위를 기록하며 종합 랭킹 5위에 올랐다.

이연주, 허영준, 김강민, 장준혁 등은 단체 종목에서 입상하며 팀 전체의 전력을 높였다. 이용우, 가민호 역시 기대 이상의 기량을 선보였다. **최동환 기자**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선수들이 지난 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ACC미래운동회에 참여해 초등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AI페퍼스 제공**

AI페퍼스, ‘ACC 미래운동회’ 참여 성료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협업 디지털 스포츠 체험 콘텐츠 굿즈 선물 증정 이벤트도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배구단이 지난 2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창조원에서 열린 ‘ACC 미래운동회’에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ACC미래운동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디지털 스포츠 체험 행사로, 예술과 기술, 놀이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운동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AI페퍼스의 협업은 광주시에 위치한 문화예술기관과 프로스포츠단이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디지털 기술과 스포츠의 융합을 실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AI’

정체성을 지닌 AI페퍼스와, 디지털 예술 콘텐츠를 선도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만나 지역성과 미래 지향성을 동시에 담아내는 상징적인 협업으로 기획됐다.

이날 광주 초등학생들이 함께한 운동회엔 AI페퍼스 선수단 박정아, 박사랑, 박은서, 박수빈 선수가 개막식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프로그램에서는 땅따먹기와 공굴리기 등 두 가지 종목에 참여해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선수단은 대표 체험 프로그램인 ‘스포츠 타임머신’에도 참여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여러 선수의 기록을 저장해두고, 관람객이 원하는 기록을 선택해 직접 겨뤄볼 수 있는 디지털 스포츠 체험 콘텐츠다. 선수들의 참여로 채워진 기록은 전시 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되며 이를 체험한 관람객에게는 응원 머리띠, 포토앨범, 키링 등 AI페퍼스 굿즈를 증정하는

현장 이벤트도 운영된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호남 지역 유일의 겨울 프로스포츠 구단 AI페퍼스가 미래형 디지털 스포츠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CC 미래운동회’는 오는 6월 1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1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관람객이 전시 기간 동안 다양한 디지털 스포츠 콘텐츠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매주 열리는 해커톤을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운동회 종목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AI페퍼스 선수들의 스포츠 타임머신 기록은 전시 기간 내내 관람객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응원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민현기 기자